

시론 속검은자들의 무지하고 고약한 나발질

지금 공화국에서는 악성전염병과의 방역대전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악성비루스의 류입으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실시된지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전염병전과상황이 억제되고 방역전에서의 승세가 확고히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동족대결에 혈안이 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공화국의 이러한 현실을 외곡하고 혈통은 궤변과 약담을 매일같이 늘어놓으며 비렬하고 추악한 대결광기를 부리고 있다.

초기에는 《북에서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 새로운 (평양발 변이비루스)가 생길 수 있다》고 떠들어대더니 공화국에서 너무도 빠른 기간안에 악성전염병과 상황이 억제되자 이번에는 또 《민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곱고들다 못해 얼토당토않은 《사망자속소설》, 《봉괴설》까지 내 돌리고 있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무지로부터 출발한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인민대중을 제일 귀중한 존재

로 내세우며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인민대중 제일주의정치가 실시되고 령도자가 온 나라 대가정의 친어버이가 되어서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참다운 사회주의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하기에 악성비루스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공화국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는것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전대미문의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초 악성비루스류입이 확인된 즉시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여 지역별봉쇄와 단원별격벽, 국가적인 의약품보장대책 등 초특급비상방역조치를 신속히 취하였다.

이 나날 경여하는 원수놈께서는 몹소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시었으며 깊은 밤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악성비루스전과위험이 절계 감도는 의약품들을 찾으시어 의약품공급 실태를 직접 로해하시고 즉시적인 대책을 취해주셨다.

하늘도 감복할 그 숭고한 인민사랑이 기적의 불사약이 되고 필승의 신심과 불가항력의 원천이 되어 이 나라 모든 가정들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고 보살펴주게 되었다.

공화국에서 세상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그토록 짧은 기간에 악성전염병확산이 억제되고 방역전에서 승세가 확고히 보장될수 있는것은 비상방역대전의 최전방에서 계시며 가장 용바른 방역정책과 적시적인 대응책들을 제시하시고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방역대전을 이끄신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전제 인민이 그의 두리에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정치사상적 우세, 특유의 조직력과 단결력이 안이한 훌륭한 결실이다.

이런 경이적인 현실을 약육강식의 사고방식과 황금만능의 가치관에 찌들대로 찌들어있는 남조선의 보수패당으로서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인정하기는 더욱 괴로울것이다.

하기에 극도의 개인주의와 반인민적정치가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에서 수천수만의 감염자가 세로 발생하고 수백수천명이 무리로 사망하고있으니 보고듣는것이란 비애와 절망, 고통의 울분밖에는 공화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락과 자대로 북의 현실을 평가하고 재어보며 《민기 어려운 주장》이니, 《사망자속소》니 하

는 궤변과 억측을 꺼리낌없이 내뽐고있는것이다.

눈을 편히 뜨고도 공화국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있어도 락관의 웃음소리와 비애의 울음소리를 분간 못하는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실로 가공스럽게 그치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것은 공화국의 보건상황과 현실을 외곡하고 혈통은 남조선보수세력의 궤변과 망발이 무지와 무식의 한계를 넘어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의와 대결흥심에 기인된것이라는데 있다.

동족이 악성전염병으로 불행과 아픔을 겪고있으면 함께 가슴아파하고 불행을 가지고 일어서면 다행스러워하며 기뻐하는것이 인자상이고 혈연적감정일것이다.

그러나 대결병에 중독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상전의 반공화국제재책동에 구구 추종해나서는것도 부족하여 악성전염병 문제까지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

《북이 확진자, 사망자수를 축소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공화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악성전염병으로 쓰러지기를 바라라는, 그래서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지

기를 바라는 대결병자들의 고약한 속동이 그대로 비껴갔다. 또한 인민사랑, 인민보위, 인민사수가 정책, 국책으로 실시되고 악성전염병사태에서도 아담답고 화목한 덕과 정이 더 활짝 꽃피어나는 공화국의 실상을 외곡, 날조하여 공화국을 동정하는 남조선민심을 오도하고 저들의 반인민적정책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잠재워보려는 비렬한 흥심도 엿보인다.

그처럼 비렬하고 속검은자들이 그 무슨 《방역지원》과 《보건협력》라령을 늘어놓고있으니 실로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것들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보수패당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말을 보고 짓어내는 개무리처럼 인간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이 제아무리 동족에 대한 헛나발을 불어대도 공화국의 밝은 모습은 가리울수도 멀쩡할수 없다.

머지않아 북녘에서 인민사수전, 비상방역대전의 승전개가가 높이 울려 퍼질 때 터무니없는 반공화국약담들을 내뿜던 남조선보수패당은 세계전역에서 또다시 개교망신을 당하게 될것이다.

정필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 하와이 연안에서 6월말부터 8월초까지 《림팩》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게 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도발적인 전쟁연습에 남조선호전광들은 대형상륙수송함과 이지스구축함, 잠수함 등 전력 최대규모의 해상전력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남조선군부는 8월중순부터 9월중순까지 오스트랄리아의 다윈 및 앵벌리기에에서 진행되는 인디아태평양지역 항공군투력합동연습에도 공군부력과 병력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과 대조선군사적 압박공조실현의 돌격대, 대포망이 되어 날뛰는 특종충전들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남조선 및 추종국들과 함께 태평양상에서 정기적으로 벌리고있는 《림팩》합동군사연습의 기본과념이 공화국이라는것은 이미전에 폭로된것이고 미국도 그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고 있다.

남조선군부가 이런것을 알면서도 이 범법적인 전쟁발장난에 참가하는것자체가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도전이다. 남조선호전광들 스스로가 이번 《림팩》훈련에 참가하는 잠수함에 탑재된 순항미사일은 초정밀타격이 가능하다. 대형상륙함도 파견하여 상륙훈련도 계획중이라고 하면서 북조선계 공격능력을 더욱 속달하려는 흥

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남조선군부것들이 인디아태평양지역 항공군투력연습에 참가하는것 역시 저들의 북침전쟁기도를 실현에 옮기기 위한 예비전쟁발장난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상전이 부른다면 죽을데인 살데인, 지척이건 천리밖이건 가림없이 달려가 불장난에 매달리는것이 남조선호전광들의 천미골풍기질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는 다국적련합훈련들에 무력을 동원하여 적극 참가하려고 설쳐대는것을 통해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이 끝수에까지 대진 대결미치광이, 불을 즐기는 호전광, 천미전쟁사환공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설치는것처럼 어리석은 행태는 없다. 미국의 총알받이에 불과한 남조선호전광들이 절대적 힘을 보유하고 군사적강세를 펼치는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가스통에도 전쟁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그속에 들어가는 망출한 개기이다.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에게 불질하려고 날뛰는 남조선호전광들은 저들의 무분별한 망동이 무서운 참변을 불러오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자숙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동족대결광들의 망출한 개기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

최근 남조선군부의 신임군종우두머리들이 취임식이라는 데서 《북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니, 《군건설 한미동맹에 토대한 전투태세강화》니, 《훈련도 훈련하는 강군건설》이니 하는마위의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고 있다. 이런 속에서 남조선군부부자들은 《인민군과 북정권을 주적》으로 규정된 장병정신교육교과를 각 부대들에 배포하는 놀음까지 벌여놓았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화국과의 불상충적인 적대관계, 군사적대결을 공공연히 선포한 도발

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공화국을 《적》, 그것도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 무슨 《대응》과 《전투태세강화》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동족을 단합과 통일의 대상, 운명을 함께 할 동포가 아니라 오직 소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있는 윤석열호전부리들의 반공화국적대의식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해서나 동족을 해치고 체제대결의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것이 바로 윤석열패당이다.

윤석열이 《선제타격》망발을 공공연히 궤지면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확대하고 미전략사상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하는것도 이러한 흥심에 따른 도발망동이다.

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을 주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적대결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전쟁사환공, 대포망이 비롯한 윤석열호전부리들이 핵보유국,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을 향해

도전의 불을 걸어오는것이야말로 제 죽을줄 모르고 설치는 미친자들의 개기, 범 무서운줄 모르고 설치하는 가소로운 광풍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어리석게 공화국을 자극하고 건드려 버린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패당은 무분별한 대결책동이 가져올것인 전쟁위상향의 악화와 처참한 자멸이라는것을 이제라도 머리속에 똑똑히 새기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생존권과 민주주의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이로운 투쟁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속에서 《정부》의 친재벌, 반로동정책을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날을 따라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지금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은 윤석열패당이 집권하자마자 로동계의 요구를 무시한채 친재벌, 반로동정책 등에 매달리고있는데 대해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반로동정책》, 《사회적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위》, 《재벌을 위한 후안무치한 개악》이라고 단죄규탄하며 강령대중투쟁을 전개하고있다고 한다.

지난 5월 한달동안만도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에 소속된 수만명의 로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하고 거리투쟁을 벌리었다. 남조선의 로동운동단체들은 《정부》의 반로동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앞으로 더욱 고조시킬 결의를 피력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날로 고조되는 이들의 투쟁은 로동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민주주의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당하고도 이로운 투쟁이다.

사실 물질적부의 창조자는 로동자들이 비롯한 근로자들이이다. 그들의 창조적 땀을 떠나는 사회의 발전이 있을수 없다.

그런데 남조선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적부의 창조자이지만 제일 친대발고 후사당하는것이 로동자들이다.

특히 윤석열패당이 집권하면서 로동자들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었다. 윤석열은 《대통령》선거때부터 재벌의 편에서서 로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짓누르려는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주 52시간로동제》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므로 철폐하고 로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떠들어 로동자들의 분

노를 자아냈는가 하면 도로 포장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에 가서는 로동안전조건을 보장하지 않고 탐욕적인 리윤추구만 앞세우다 사고를 친기업을 추종할 대신 로동자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간단한 실수로 죽었다고 발언하여 로동계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로동자들이야 죽든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윤석열의 본색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 다음 더욱 로폭적으로 정책이 반영되어 로동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5월 윤석열패당이 생존권을 위한 민주로총의 합법적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대며 경찰을 내몰아 민주로총관계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죄목을 들춰워 구속한데 이어 민주로총 전국택시로동조합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손전화기들에 대한 압수수색놀음을

한 달과 5년

남조선에서 《국민통합》과 《새로운 출발》을 떠들며 보수 《정권》이 출현한지 한달밖에 안되었다. 하지만 사회 각계층속에서는 벌써부터 《윤석열정부는 짝수가 노랗다》, 《기대보다는 점점 더 실패정권으로 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정치문의한, 정치코흘리개인 윤석열의 우직하고 설익은 국정운영태에 망연자실한 남조선민심의 마땅한 단죄라고 해야 할것이다.

못된 버리지 장관박달에서도 모로 긴다고 윤석열이 《대통령》관두를 쓰고하는것이란 모두가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것 뿐이다.

검찰총장을 해먹을 때 끼고있던 검찰패들을 권력기관에 대대적으로 박아넣고 정적거와 검찰통치방식수법에 매달리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물론 정보원에 도 자기의 검찰총장들을 대대적으로 등용하였다.

특히 자기의 최측근을 거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기구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내오게 하였는가 하면 이전 《정권》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을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핵심직무들에 들어앉히고 폐지되었던 각종 수사기구들도 다시 내었다.

뿐만아니라 당선직후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다》,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나가겠다》며 열매발치고는 취임하자마자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대북정책》, 외교정책은 대실매이라고 혈통으며 핵

심정책들을 모조리 뒤집어엎는 놀음도 벌여놓았다.

또한 이전 《정권》에서 일을 했다고 하여 현직관료들을 강제로 내쫓는가 하면 보수단체들이 전 집권자의 집안에서 열린 소란을 피우고있는것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하면서 이전 당국의 《치적》지우기에 열을 올리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은 윤석열이 앙갚음의 칼날을 번득이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망동을 《로폭적인 정치보복》, 《위험한 검찰독주》로 규탄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이 소동으로, 현장방문이니 하면서 너편네까지 끼고 여기저기 돌아치다 못해 공무시간에 《대통령》사무실에서 애완용개를 안고 사냥을 찍어댄 사실, 때없이 먹자판을 벌여놓고 아내것들에게 내닷에 술도 마시면서 일하라는 상식이하의 지시를 하는가 하면 밤늦게까지 술을 퍼마시고 만취되어 온갖 추태를 부린 사실 등도 등장나 《정말 한가한 대통령》, 《일군이 아니라 술꾼, 놀새이다》는 지탄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있다.

오죽했으면 보수패들속에 서까지 《검찰식사고를 버려야 한다》, 《만취되었던 윤석열은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아야 타당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겠는가.

남조선 각계층이 막돼먹기 그지없는 윤석열의 절없는 꼴을 5년간 지켜봐주어야 한다니 기가 막히다. 《검찰공화국》에서 일방적인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윤석열의 아마추어식행태로 경제, 민생은 물론 안보도 엉망진창이 되고 사회적갈등

과 불안만 격화될것이라고 탄식하고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작을 보면 끝을 알수 있다고 윤석열의 집권 한 달을 통해 앞으로의 5년을 미리 진단할수 있다.

집권하여 얼마 안되는 기간에 윤석열이 보인 갖가지 몰상식하고 미련한 행태들은 이를로 피하려다 범을 만난 격으로 남조선인민들이 그야말로 최악의 우환거리, 골치거리가 부닥쳤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독재적인 사고와 검찰만능독주,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무지막친한 박해와 탄압, 주재잡기에 이몰이 난 윤석열때문에 앞으로 남조선정국은 량상없이 되고 안보와 민생이 벼랑끝에 이르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변하다.

본사기자 배영일

체면을 세워보려는 공여지책

한 대중국전략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흥심을 그대로 드러냈것이라고 할수 있다.

하기에 미국의 대중국전략이 발표되자 중국은 외교보에 발표된것을 중국은 외교보에 퍼뜨리고 《중국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대내외정책을 비난하는것이며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탄압함으로써 저들의 패권과 강권을 수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주관관의 연설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것으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본성을 다시금 폭로해준다. 미국의 주장은 완전히 후백을 전도한

것이다. 그 누구도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 막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국의 강경한 립장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도 사실에서 《맹정적사고를 고수하며 중국을 압박해 미국의 패권을 보호하려는 집요함을 반영하고있다》라고 하면서 《미중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리유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통신, 방송들도 미국의 대중국전략은 사실상 경제, 군사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의 힘을 막을 대안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남조선을 《인디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가담시킨것도 대중국로위협을

성의 앞장에 내세우려는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남조선의 윤석열 《정부》는 극도로 침체해지는 중미대결의 짝에 끼운 저들의 위태로운 신세도 간파하지 못하고 외교균형을 파괴하며 천미일변도 정책에 매달리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한》중관계가 시련을 겪을것이다. 남조선이 미국의 반중국전제선에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 대국들의 강력한 정치외교적압박을 초래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주변강대국들의 틈에 끼워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건잡을수 없는 위기국면으로 몰아넣고 사면초가의 운명에 빠져들수밖에 없다고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만화 《검찰독재국가》의 출현

《만취되었던 윤석열은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아야 타당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겠는가.

남조선 각계층이 막돼먹기 그지없는 윤석열의 절없는 꼴을 5년간 지켜봐주어야 한다니 기가 막히다. 《검찰공화국》에서 일방적인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윤석열의 아마추어식행태로 경제, 민생은 물론 안보도 엉망진창이 되고 사회적갈등